

전 남

전남 깨끗한 바다만들기 350억 투입

전남도는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350억원을 투입해 계절별·해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대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주요 사업별로는 해변쓰레기 수거 처리에 11억원,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에 8억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25억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에 10억원, 해양폐기물 종합처리

해양쓰레기 수거·선상집하장 설치 등 5개 사업

신안 해양폐기물사업 탄력... "바다환경관리 동참"

나 로프는 연중 수매할 계획이다. 또한 태풍이나 장마 때 떠밀려와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는 수시로 어촌계와 지역 주민들이 나서 정화하도록 하고 조업중 수거되거나 인양한 쓰레기의 경우 재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선상집하장 29개소를 설치된다.

이외에도 중국이나 수도권으로부터 흘러드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국비 236억원을 지원받아 신안 압해면

에 설치하기로 한 해양폐기물 사업이 최근 전남도 건설기술심의회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는 바다쓰레기를 지역과 계절 특성에 맞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해 수산 동식물의 산란과 서식장소인 연안해역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주민 소득이 증대되고 해변 관광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쓰레기의 수거와 재활용을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깨끗한 전남 해양을 지켜나가겠다"며 "6천 km가 넘는 긴 해안선과 광활한 바다는 전남의 경쟁력이자 도민의 생활 터전인만큼 깨끗한 바다환경 관리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해양쓰레기의 이동 경로와 재활용 등 정보통합관리 시스템을 마련중이어서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일관되고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에너지 절약 자전거 행진'

지난 19일 곡성에서 열린 '에너지절약 자전거 행진' 참가자들이 함께 페달을 밟고 있다. 이날 행사는 곡성 청소년 아영장을 출발해 '섬진강 블레길'을 경유하는 왕복 14km 구간에서 치러졌다.

<곡성군 제공>

여수 가막만서 굴 인공종묘 시험양식

5월부터 굴 생산 어민위해 생산기술 보급

2015년까지 전체 시설량의 25%수준 확대

최근 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지역 굴 생산 어민들을 위해 인공종묘 생산기술이 보급된다.

20일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굴 양식산업은 부산 가덕도, 광양 등지에서 이뤄져 왔으나 굴 채묘장이 항만개발 등으로 점차 축소되고 굴 종묘의 멸종화로 생산성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여수지역 관내 굴 수하량도 440만 연(양식시설 단위 한 줄)에 이르지만

현재와 같은 자연 채묘에만 전량 의존하는 방식은 어미 굴의 유전적 열성화에 따라 비만도와 성장이 매우 느리고 환경변화에도 약해 대량 폐사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산과학원은 수협, 패류종묘 생산업체, 굴양식 어업인과 함께 오는 5월부터 굴 우양 인공종묘 5000원을 여수 가막만에 시험 양식하고, 연차적으로 시설량을 늘려 오는 2015년까지 전체 시설량의 25% 수

준인 100만여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생산할 굴 인공종묘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패류종묘 생산업체에서 선발해 키운 우량 모패를 종묘로 사용하고 기존 인공종묘와는 차별화된 면역력을 강화한 먹이생물을 공급해 생존력을 높일 계획이다.

수산과학원은 인공종묘 보급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조사와 성장도, 폐사율, 병해감염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매년 굴 인공종묘의 생산성에 관한 사업발표회도 열어 굴 인공종묘를 적극 보급하기로 했다.

/동부취재본부 박성태기자 mihang@

나주 우정사업센터 4월 착공 혁신도시 조기활성화 탄력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지원으로 늦춰졌던 우정사업정보센터의 건축공사 발주가 지난 17일 공고되면서 혁신도시 조기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정사업정보센터는 다음달 9일 입찰에 이어 4월부터 청사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혁신도시 15개 이전 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첫 삽을 뜨게

되던 그동안 논란이 됐던 혁신도시 불확실성은 급격히 해소될 전망이다.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총이전사업비 779억원이 투입돼 부지 4만9544㎡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만 7699㎡ 규모이다. 현대적 감각의 그린(Green) IT센터로 건축되며 2012년 말까지 816명이 이전하게 된다.

우정사업정보센터 건축공사는 지

역의무 공동 도급제 시행에 따라 지역의 건설업체들도 40% 참여의 의무화함에 따라 수도권 업체와 짝짓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우정사업정보센터 건축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3월에 청사발주를 공고할 예정인 국내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의 수주 향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광주·전남 건설업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청사건축 발주기관들은 한국전력, 한전kps, 전력거래소, 전파연구소, 농업연수원 등이 계획돼 있다.

/중부취재본부 최승렬기자 srchoi@

수자원공-의사회

전국 16개 댁주변

"의료봉사 활동"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올해 열린 의사회와 공동으로 장흥댐 등 전국 16개 댁 주변지역과 지방상수도 수탁사업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에 나선다.

다음달 6일 장흥 댐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진행되는 의료봉사 활동은 내과·외과·치과·산부인과·안과·한방과 등 6개 과목을 휴일을 이용해 진료할 계획이다.

k-water는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입, 해당지역 주민 5100여명에게 꼭 필요한 의료혜택과 함께 보관할 수 있는 기초 상비약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k-water와 열린 의사회는 지난해 의료봉사활동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남지역본부는 내실있는 의료봉사활동을 위해 직원 자원봉사단을 결성, 진료소 설치는 물론 노인 이·미용 서비스 및 다채로운 문화공연 등을 준비해 사업효과를 증대시킬 계획이다.

/송기태기자 song@

화순 능주·동북면 농촌개발사업 추진 박차

120억 투입 음식특화거리·농악전수관 조성

화순군은 올해 '능주권역 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과 '동북 삼북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양 사업은 지난해 11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11년 신규사업으로 확정됐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능주권역이 '옛 목욕탕 번영을 꿈꾸는 뉴타운 거점마을'이라는 비전과 기본방향을 토대로 능주면 잠정리 등 5개 리에 올해부터 201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 ▲경관정비 및 개선사업 ▲문화복지사업 ▲친수공

간 정비사업 ▲음식특화거리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한다.

삼북권역은 동북면의 대표적 먹거리 자원인 산양삼과 풀(滿),어(漁) 등 '삼복(三福)을 메인 테마로 동북면 한천리, 연두리 구암리 등 3개 리에 농악전수관 조성, 다슬기 양식장 조성, 주민복합 문화센터, 문화갤러리, 생활환경 정비 등 올해부터 2015년까지 5개년에 걸쳐 50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군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1년도 사업비로 능주 21억원, 동북 9억원을 확보하고 지난 1월초 전문기술

영역기관과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군은 사업 전반에 관한 설명과 주민의식 함양을 위해 지난달 15일에 동북면, 18일에 능주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개발모델 결정 등 내실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할 것"이라며 "타 지역 선진지 견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식향상과 능력 제고에 기여하는 등 사업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 정은수기자 unsu@

구제역·AI 확산 우려

'광양 국제매화축제' 취소

올해 처음으로 국제규모 행사로 열릴 예정이던 '광양 국제매화축제'가 구제역 여파로 취소됐다. 광양 매화축제는 불꽃축제로는 가장 빠른 3월 초에 매년 열려왔다.

한편 광양시는 다음달 12일부터 20일까지 다담면 매화마을 일원에서 '섬진강 물길 따라 매화향 그윽한 광양우러로 개최 여부를 놓고 논의를 계속한 결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광양시는 축제 취소에도 예

년 평균 상춘객의 70% 정도인 50만 명이 매화마을에 찾아 올 것으로 예상하고 상춘객들을 위한 교통대책 수립에 나섰다.

다. /동부취재본부 박성태기자 pyj4079@

축산경영학회장에 박민수

전남도농업기술원 박민수 원장이 지난 17일 사단법인 한국 축산경영학회 제19대 회장에 취임했다.

박 원장은 "최근 구제역과 AI 등 축산현안을 극복하고 안정적 축산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학관인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축산발전과 친환경 축산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태기자 song@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featuring a table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 section for '토지 매매' (Land Sale) and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details.